

서울시, 外人 결제수수료 인하 등 고물가 속 '소상공인 살리기'

소상공인 위기극복 동행 프로젝트 판로 확대·매출 증대 지원 등 추진
외인 결제 가맹점 수수료 2.7%p ↓

서울시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상공인 위기극복 동행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외국인 결제 가맹점 수수료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올해 3차례에 걸쳐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수 경기 부진으로 생계 절벽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돕고자 ▲소상공인 판로 확대·매출 증대 지원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서울품물시장 관광 명소화 등을 추진한다.

올해 시는 외국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상품권 발행, 푸드마켓 운영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성장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먼저 시는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주



광화문광장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시민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현정 기자

요 결제 어플과 '서울표준QR'을 연동한 간편결제 서비스 확장에 나선다. 기존 위챗·알리페이(중국) 등 10개 애플리케이션 외에 라인페이(대만), 창이페이(싱가포르)를 포함 5개 앱을 추가할 계획이다.

결제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 외국

인관광객 결제 가맹점 수수료는 현행 4.2%에서 1.5%로, 외국인관광객 부담 평균 수수료는 종전 2.2%에서 0%로 각각 2.7%p, 2.2%p 낮춘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공항 입국장(수하물 인도장) 전광판에 노출하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호텔 관광 센터에 배포하는 등 외래관광객과 소상공인을 대

상으로 외국인 모바일 간편(QR)결제 서비스를 전방위적으로 알린다는 구상이다.

또 시는 지난 1월 설 명절에 1000억 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데 이어 오는 5·9·11월 3차례 더 상품권을 풀 예정이다. 금년 발행 규모는 총 8480억원이다.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로 공원(종로구 세종대로 189)에서는 올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수~일요일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광화문 푸드마켓' (2400㎡ 규모)을 열고 푸드트럭과 수공예품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고품격 한식 푸드마켓으로 브랜드·네이밍을 개발하는 등 한식 먹거리를 상품화한다는 복안이다.

먹거리 상품 개발과 함께 야간 이벤트 개최를 통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한다. 계절·지역색·시장 특성 등 개성 있는 테마를 활용한 야간·먹거리 축제를 선보이고 야시

장 운영을 지원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표다.

근·현대 생활용품이 거래되는 서울 품물시장은 시민들에게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도심 속 관광명소로 되살린다. 시는 올 2~12월 품물시장(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1)에 34억7700만원을 투입해 관광명소로 재탄생시킨다. 간판과 판매대를 정비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해 쇼핑 환경을 개선한다. '빈티지&엔틱'으로 브랜딩하고 유튜브, SNS를 활용한 마케팅을 추진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인 아카데미(순님 응대, 마케팅, 리더십 등)를 개최한다.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해 품물시장의 운영·관리 개선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영업시간, 가격 정찰제, 교환·환불, 점포 운영 등에 대한 영업 규정을 마련하고 점포관리 인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난임시술비, 거주기간·연령 차등 폐지

서울시, 초저출생 위기 극복 지원
신청일 기준 거주하면 누구나 가능

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모두 없애고, 지원 횟수도 3회 늘린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시술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애 시술비 선택권을 보장해왔다고 시는 강조했다.

올해 시는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를

기존 22회에서 25회로 총 3회 늘린다. 신선·동결배아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한다.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시는 지원횟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거주 요건도 손뼉했다. 이번에 시가 서울 거주 6개월 조건을 삭제함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누구나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자들의 연속적·장기적 난임치료 필요성을 고려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해 고령의 난임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44세 이하의 건강보험 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금마저 최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 고령산모의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1회 시술비 지원 상한액도 44세 이하 시술 종류에 따라 30~110만원인데 반해 45세 이상은 20~90만원이었다. 이에 시는 45세 이상 난임자 지원 비용을 상향 조정해 고령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시술비 지원 희망자는 '정부24'(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개발도상국 3개 도시 대상 '공적개발원조'

서울시, 지방자치 최초 진행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도상국 도시를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서울 ODA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앙정부나 다자개발은행 사업에 참여하는 기존 ODA 사업과는 달리 시가 직접 재원을 투입해 도시문제 해결을 원하는 개발도상국 도시의 수요를 발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의 압축 성장 경험을 기반으로 개도국 도시가 겪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공모 대상은 개발도상국(OECD 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기준) 지방정부들이며, 내달 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받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는다. 총 3개 도시를 선정해 사업별로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 내용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지원 도시를 선정하고 ▲도시계획 수립 지원 ▲공무원 역량 강화 ▲정책 자문 ▲주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시범사업 추진 등을 서포터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하남시, 美 아칸소주와 경제협력 체결

산업교류 확대 등 경제협력 약정

이현재 하남시장은 한국을 방문한 미국 아칸소주 경제사절단과 8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양 지역 산업교류 확대 등 경제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주 주지사는 전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대변인을 지냈으며, 첫 여성이자 최연소 주지사로서 미국 정치 역사상 최초 부녀주지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이날 만남은 아칸소주에 있는 리틀록시의 자매도시인 하남시와 주 차원에서 경제·비즈니스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칸소주 측의 선제안에 따라 추진됐으며, 8일 새벽 한국으로 입국한 후 첫 공식행사로 잡을 만큼 하남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하남시 IR 자료 시청, 양 기관 간 경제·비즈니스 확대 방안 논의, MOU 체결 순으로 진행됐고, 양 기관

은 문화협력, 경제 및 비즈니스의 활발한 교류와 직원 상호 파견 근무 등 인적 교류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도 서로 공감했다.

또한, '하남시-아칸소주 간의 경제협력' 약정으로 양 지역 간 무역·투자, 농업 분야 등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참석한 샌더스 주지사는 "향후 한국을 재방문하면 하남시의 K-스타 월드 부지, 쇼핑몰 등을 꼭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하남(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49 | 해질 / 18:36

3월 11일 (월)
음력 : 2월 2일

수도권 날씨
2 ~ 12°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1/11, 동두천 -1/11, 가평 -1/11, 파주 -1/11, 서울 2/12, 양평 0/11, 인천 3/11, 수원 3/11, 용인 3/11, 평택 0/12, 백령도 4/8



▲말레이 티모르 섬 인근서 규모 5.0 지진 /사진 뉴시스
▲美 바이든 대통령,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 "손해 끼치고 있다" 비판

▲美, 다음달 일본과 정상회담서 무기 공동생산 전망
▲성차별 조항 개헌 시도한 아일랜드, 국민투표 부결로 실패



▲미국, 중국 창신메모리 등 반도체 제재 확대 방침
▲스페인, 가자지구 200톤 식량 등 지원 준비 끝 /사진 뉴시스